

불교 노인복지 양-질 '성장'

교계 노인시설 40여곳... '노인의 날' 맞아 행사다채

은평복지관 세미나등 열어
진각중 성북복지관 30일 개관
연꽃마을 10월 노인작품전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이자, 10월2일은 정부가 정한 제2회 노인의 날. 노년연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노인복지는 그에 뒤따르지 못하는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교계가 노인복지시설을 잇따라 개관하는 등 노인복지에 힘을 쏟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교계 노인복지 관련시설들이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있다.

현재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40여개. 여기에 올 3월에 총지중에서 운영하는 역

삼재가노인복지센터가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7월에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했으며, 오는 30일에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불교신행연구원도 최근 대구에 100평 규모의 그룹홈을 마련해 노인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양적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연꽃마을은 해마다 2개씩 노인 무료병원을 확보해 현재 12개 병원에서 연 50만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3곳의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한 산하 8개 시설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 도시 및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20여개의 노인대학과 40여개의 경로식당을 비롯해 노인주·야간보호소, 노인상담전화, 이동목욕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은)은 현대불교신문사와 공동으로 28일부터 10월2일까지 5일간 '세계노인의 해 맞아 기념특별대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8~30일 3일간 순회노인무료진료를 시작으로 29일에는 복지관 세미나실에서 '새천년 교령화시대의 노인들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30일 노래자랑, 10월1일 체육대회, 2일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 등이 계속돼 '노인종합축제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도 10월 한달동안 전국 7개 도시를 순회하는 '99 연꽃마을 노인작품 전시회

를 개최한다.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하고 노인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 시설 이용노인 및 자원봉사자 1만5천여명이 대거 참가하며, 10월1일 서울을 시작으로 안양, 평택 용인 대구 인천 수원 등지에 각각 2일간씩 28일까지 열린다. 진각중이 운영하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식 당일인 30일 치매노인봉사자세미나 및 장수왕 선발대회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10월중에는 노인의 해를 기념하는 별도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명우 · 이은자 기자
(mwhan@buddhania.com)



30일 개관하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치매주간보호사업 및 사회교육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펼치게 된다. 사진은 복지관 전경.

뉴스 & 뉴스

석림동문회 회장 법조스님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는 15일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법조스님(교우사주지·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은 지명스님(청계사 주지)이 선임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또 정관수정을 통해 회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신임 회장 법조스님은 "작년 중단사태를 보여 석림동문회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감했다"면서 "전 동문의 화합을 통해 중단과 동국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수계산림 신청행자 급증

태고종이 7일 서울 종무처에서 실시한 제23기 합동독수계산림참가신청을 위한 소양시합참가 행자가 214명으로, 예전의 1백여명보다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불의식, 제반 불교교리, 종단관 등 예비수행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점검하는 소양시합에 합격한 행자들은 각 사찰별로 오는 10월 10일까지 행자교육을 받던 뒤 태고총림 선암사에 실관되는 합동독수계산림에 참가해야 한다. 이경숙 기자

한나래문화재단 설립법회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은 15일 풍도사부산포교원 법당에서 설립자총법회를 개최했다. 성오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을 비롯한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장 심산스님은 "21세기 포교로 문화포교를 선택한 것에 많은 분들이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사찰수련회 담당자 회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원)은 17일 회실에서 교구부사 사찰수련회 담당자회의를 열고 사례보고와 자료수집 및 수련회 백서발간 계획, 홍보방법, 프로그램 개발방법, 수련생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련회 사전준비회(매년 5월) 및 평가회(9월)의 공식화 △수련회 안내센터 설치 및 홍보 강화 △다도 등 사찰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단계별 연령별 단계별 프로그램 전문화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동대 교수회장 심익섭교수

동국대 서울캠퍼스 교수회는 16일 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에 심익섭 교수(행정학과), 부회장에 이호영 교수(기계학과)를 선출했다. 교수회는 10월 초 서울·경주캠퍼스 합동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총회장을 선출하는 조직을 정비한다. 강지연 기자

아파트내 사찰 납골시설 가능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이달말부터 아파트 단지내 절에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

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설 수 있는 문화 및 종교집회장 등의 부대시설 안에서도 납골당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납골당만을 따로 짓는 것은 여전히 금지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주거·상업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종교 시설내에서의 납골당 설치를 허가할 바 있다.

한편 서울에서 한 하루에 55구가 발생하나, 처리능력은 45구에 불과한 실정. 또 전국적으로는 44개의 공설 화장장이 있지만 서울과 부산 등 최근에 중·개축한 일부 화장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0~7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주변환경이 불량한 상태. 따라서 최선시설의 사찰 납골당이 도심 곳곳에 자리잡을 경우 매장문화 선도는 물론 포교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명우 기자

"승가대 김포학사 결함보수 완료"

품질산업 기자간담회

(주)품질산업 김덕만 전무(자급담당)와 조태두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현장소장은 13일 김포학사에서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포학사 시공 결함 보수공사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폭우로 인해 침수되거나 결로 현상이 발생한 대하본부동, 에너지관리동, 제1수행관, 교수회관, 강의동, 제2수행관 등 지하층의 결함부분은 대부분 보수가 이뤄졌으며, 대학본부동의 지하소극장의 벽체(천) 곰팡이 발생 부위는

페이브릭천을 교체시공하고 공조 덕트시설을 추가보완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덕만 전무는 "지난 8월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김포학사 일부 건물에 누수 및 결로 등의 결함이 발생했으나 즉시 보수를 완료했다. 조계종에 실려를 가져 송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측은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공사 보고서>를 발간, 공사부실의 책임을 묻는 한편 법적으로 중공검사가 완료돼야만 공사비 43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승가원-일 메히노 야원

복지정보 교류 합의

승가원(이사장 현성)이 일본의 종합 장애인 복지시설인 '메히노 야원'과 복지정보를 상호교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불교계가 선진복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가원은 이번 합의가 지난날

27일 현성스님이 메히노 야원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메히노 야원의 나카다 이사장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승가원은 향후 장애인 재활교육 정보화를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 시설 건축 시 설계자문을 요청하는 등 일본 복지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창립

각종 교육사업 전개...대안학교 추진도

인드라마 생명공동체가 지난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도법(실상사주지) 성관(수원포교당 주지) 정역(전국비구니회)스님과 박광서(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정해숙(전 전교조위원장)씨 등 5인이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상임대표는 도법스님이 맡게됐다. <관련인터

뷰 3면>

인드라마 생명공동체는 창립식에서 이어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과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세부사업계획에는 귀농전문교육, 생협교육, 생태순화적 생활교육, 전문교육, 양생교육 등 농촌과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각종 교육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생태·생명가치를 이념으로 하는 공익교육사업도 포함돼 있다.

'고가염주' 수사의뢰 검토

조계종 호법부

조계종 호법부는 큰스님 초청 법회를 빙자해 고가의 염주를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호법부장 중 고스님은 16일 교계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교의 이름을 팔아 국민들을 기만하고 금전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어 불교의 위신 및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

는 일"이라며 법회를 빙자한 물품 판매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호법부는 이들 법회는 △순수한 법회가 아닌 물품판매를 위한 위장된 법회 △물품판매 이익금 중 일부만 명의를 빌려준 스님들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장된 법회에 신도들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전국신도회 김재일 사무총장(왼쪽)이 성남 아람중학교 정주석교장에게 축비를 전달하고 있다.

'자비의 죽비' 전달

'부모와 자식과도 같은 아름다운 사제지정(師弟之情)의 확산'을 목표로 '자비의 죽비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가 14일 성남의 아람중학교(교장 정주석)에 죽비 60개

를 전달했다. 무관심과 삭막함으로 치달은 안타까운 교육현실을 치유하고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는 취지로 전국 초·중·고에 죽비보내기를 하고 있는 전국신도회는 현재 동국대부속 중·고등학교 등 20개교에 630개의 죽비를 보냈다. 교명배 기자

직지사앞 상가건립 "절대 안돼"

김천 직지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일주문앞에 휴게음식점 건립하려는 건축주를 저지하려다 신도 1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음식점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회측은 14일 새벽6시 인부 및 과천년 60여명을 동원, 건축에 정부지에 건축자재를 불하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다 직지사스님과 신도 1백여명의 저지사과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직지사측 신도 이복희씨(76세)와 공사인부1명이

부상을 당했다. 관계측은 다음날 오전에도 재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오후1시부터는 유혈 충돌을 막기위해 전경 1개중대가 출동했다. 직지사측은 "음식점이 직지사일주문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사찰수행환경을 크게 저해한다"라며 건립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nia.com)

참몸(眞身) 원리 연구

본 원은 참 몸(眞身)원리 연구를 같이 탐구할
회·월·울·모·집·합·니·다

다음

- 과정: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전문과정(각 과정 3개월)
- 과목: 중의 기초학~침구경락학 상한론 금과요락
- 강의일시: 10월부터 매주 월,수(2시간) 오후 2시~4시
- 개강일시: 10월 4일(월요일) 참 몸 원리 연구원
- 강사: 박현오 스님
- 대상: 수강 및 통신생(스님,포교사,불자)
- 자격: 연령 제한 없음
- 제출서류: 전화 접수 후 본인 양식 서류를 제출함
- 모집인원: 수강생 00명 통신생 00명
- 상담문의처: 총무원 0346-592-8891, 02-591-7710, 전담강사 02-980-2177
-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 대한불교총회출판물 출판본산인수전사강원내부설 참 몸(眞身)원리 연구원
- 참고: 각 과정 이수 후 참 몸(眞身) 원리 상담사 자격증 수여. 자격취득 후 본인에서 실시한 연수 교육(약7일) 과정을 거쳐 개원할 수 있음.
- 특전: 외국 연수기회 줌

참몸(眞身) 원리 연구원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전국 대리점 모집 02)757-1780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알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김(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성분의 성분이 신김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보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 대가야 임의 맛을 통해 모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김(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킨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굽어질 듯 아프며 거기도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학이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제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제품을 배꼽(신김)에 찌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통이 사라졌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체험사례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굽어질 듯 아프며 거기도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학이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제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제품을 배꼽(신김)에 찌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통이 사라졌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매달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장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두통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발열이 걸고 띵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뻛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신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심장상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하시는 분은 즉시 전량하십시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